

한국번역문학에 대한 중국 현지 독자들의 반응 연구 — 공지영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의 온라인 독자서평을 중심으로*

강 경 이
(이화여대)

1. 서론—문제 제기

최근 적극적인 한국문학 시장 발굴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제도적 번역지원¹⁾ 등에 힘입어 한국문학의 글로벌 무대 진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로써 세계 출판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존재감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2011년 맨 아시아 문학상 수상, 김애란의 『달려라 애비』

* 본 논문은 2016년 동국대학교 번역학 연구소 봄학술대회 <한국문학 세계로 가는 길>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1)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한국도서의 번역지원 공모사업, 번역지원 공모사업 선정작품에 대한 출판 지원, 한국문학 홍보를 위한 해외교류사업, 번역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주목 받지 못한 작품상’ 수상, 배수아의 『철수』 2016년 ‘PEN 번역상’ 최종 후보 선정, 한강의 『채식주의자』 2016년 맨부커상 수상 등 가시적인 수상 성과들도 창출되고 있다. 특히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상 수상의 쾌거를 안은 데는 번역가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 이는 한국문학의 해외 보급 과정에서 번역서의 선정과 번역 품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되새겨 주었다.

근래 들어 중국 출판 시장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본격문학²⁾이 꾸준히 번역 소개되고 있으며, 신경숙, 공지영 등 몇몇 작가들은 중국 일부 독자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왕염려 2014: 49-50, 80-82).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 번역 문학작품들은 중국 출판 시스템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매스컴의 전문 서평가나 비평가에 의해 깊이 있게 다뤄진 적이 거의 없음은 물론 대중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열악한 번역사 처우로 인한 번역 품질 문제, 출판 후 후속 관리 미흡, 독자와 소통의 장 부족 등 다각적인 원인이 얽힌 결과라고 볼 수 있다(김윤진 2013; 김선남 2015,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무적인 현상은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일부 작가의 특정 작품들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의 댓글 서평이나 중국 내 온라인 독서커뮤니티를 검색해보면 한국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평이나 분석들이 이전에 비해 수적으로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 문체에 관해 언급하거나 번역텍스트의 가독성을 평가하는 등 내실 있는 글들이 상당 수 올라오고 있었으며, 전문 서평가 수준의 글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이는 한류, 즉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문학영역으로도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이다.

본고에서는 온라인 매체 상에서 중국 독자들이 한국문학에 대해 기술한 이 같은 서평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문학 번역 출판물을 실제로 접한 독자들이 감상자 혹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피력하는 다양한 반응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문학의 중국 시장 확대전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 본 연

2) 문학비평용어사전(2006)에 따르면 본격문학(本格文學)은 “사회적 목적이나 효용으로 활용하는 삶을 위한 문학이기보다는 본래적인 예술을 위한 문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순수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흔히 예술성을 외면한 통속적 대중문학의 반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현지 독자들의 수용태도를 유추할 수 있는 척도로서 온라인 독자서평이 지니는 유용성에 대해 논한 다음, 공지영 작가의 작품 2편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온라인 서평을 분석하여 특징을 유형화하고, 그에 착안하여 한국문학이 중국시장에서 좀 더 깊이, 넓게 수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해 볼 것이다.

2. 온라인 독자서평이 지니는 의미

서평은 출간도서에 관한 정보나 해석, 비평이 담긴 텍스트로서, 민경록(2015)에 의하면 ‘도서에 관련된 내용과 형식을 해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도서를 이용자, 독자들에게 제시하려는 서지정보원 중의 하나’다. 김인숙(2009: 15)은 서평이 독자에게 도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도서 선택을 위한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기능, 책을 매개로 한 독자와 출판사 또는 저자의 소통을 돕는 기능, 도서에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2차 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서평은 텍스트 작성자, 전달방식, 기술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특히 루켄빌(Lukenbill 2002, 공정자 2014에서 재인용)은 서평을 작성 주체에 따라 출판사 서평, 독자 서평, 전문가 서평으로 구분했다. 출판사 서평은 책을 보다 긍정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서의 서평이고, 독자 서평은 책이나 독서 흥미를 고취하기 위해 독자들이 작성한 서평이며, 전문 서평은 전문가나 사서들의 도서 선정을 위한 도구로서의 서평이다. 그밖에 서평 게재 매체에 따라 기술(문자)서평과 구술서평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기술서평에는 신문서평, 학술지서평, 인터넷서평, 도서관서평이 있으며 구술서평에는 라디오서평, TV서평이 있다(김상호 2003: 13).

최근 출판환경이 빠르게 디지털, 스마트화됨에 따라 이러한 서평이 전파되는 채널도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의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 블로그, SNS(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팟캐스트 등 웹 기반 공간으로까지 다원화되는 추세다.

이 중에서도 본고가 주목하는 키워드는 ‘독자’라는 주체에 의한 ‘온라인 공

간'에서의 서평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국어로 번역 출간된 한국문학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온라인독서평'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정해진 틀이 특별히 없는 온라인 상의 독자 서평은 전문가 서평에 비하면 형식이나 분량 면에서 훨씬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품질의 편차가 크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실제 책의 소비자이자 사용자인 '독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텍스트라는 점, 도서 선별 및 분석, 비평능력을 지닌 독자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석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온라인 공간'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자면 정보량이 제한적인 지면 서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김한나(2008: 24-25)에 따르면 인터넷 매체 서평이 하이퍼텍스트(hypertext), 인터랙티브(interactive), 멀티미디어(multimedia)를 기반으로 하므로 쌍방향 글쓰기가 가능하고 누구나 손쉽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어 서평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인터넷 서평은 정보망을 이용해 다른 연관 정보로의 접근이 훨씬 용이한데다 다른 독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접하며 독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전문가 서평이 갖는 신뢰도와는 또 다른 형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김인숙 2009).

김순미(2012: 8)는 온라인 상에서 번역서에 대한 독자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수용의 측면과 전파의 측면으로 설명했다. 수용의 측면에서는 빠른 문화교류와 전파로 과거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들만 누렸거나 그들을 통해 전파되던 외래문화가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직접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전파의 측면에서는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공유하게 된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가 온라인 독자서평을 한국문학의 중국 내 보급 확대 방안을 찾기 위한 실마리로 삼은 것도 최근 도서 보급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 활용의 극대화'와 '독자 간 구전에 의한 전파'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국 내 온라인 상의 독자서평에 주목하고자 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웹 기반형 각종 공간들이 도서의 발견, 홍보, 보급을 위한 주요 채널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중국 출판시

장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아직까지 중국 내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적극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반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온라인 독자서평은 한국문학을 직접 접한 독자들이 기술한 내용이므로 번역된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독자들의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중국 독자들의 독서 취향, 코드 등에 관한 정보를 직,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넷째, 연구 주제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간 번역학계에서 사용자관점의 온라인 독자서평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도 하나의 동기 부여가 되었다. 물론 출판번역에서의 독자 규범을 다룬 이상원(2004)이 독자들의 작품평가 규범을 도출하기 위해 온라인 서평을 분석한 바 있고, 김순미(2012)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비평이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며 전문화되고 있음을 사례분석으로 밝히는 등 몇몇 선행연구가 있었다. 최근에는 왕염려(2014)가 한국문학의 중국 수용현황에 관한 연구³⁾에서 2001-2013년에 출간된 일부 한국 작품들의 온라인 서평 수와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룬 적이 있을 뿐, 온라인 서평 현상을 매개로 한국번역문학에 대한 현지독자들의 반응을 깊이 있게 다룬 연구는 드물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번역작품을 선정하여 온라인 상에서 실제 중국 독자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얻고 있는지 분석해보기로 한다.

3. 온라인 독자서평 분석 사례 선정

3.1 온라인 서평 사례 출처

본고에서 분석하게 될 온라인 서평들은 중국 최대의 도서, 영화, 음악 리뷰

3) 중국 내 한국문학 번역 및 수용현황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왕염려(2014) 외에 장애리(2013), 최면정(2014), 김선남(2016) 등이 있으나 대부분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수용양상이나 통시적 흐름을 기술하고 있고, 독자들이 한국번역문학에 대해 직접 기술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반응 연구를 한 사례는 드물었다.

사이트로 꼽히는 ‘더우반닷컴(豆瓣·www.douban.com)’ 내 ‘더우반독서(豆瓣讀書)’ 카테고리에서 추출하였다. 더우반닷컴은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User Generated Content) 기반의 커뮤니티 사이트로 온라인 회원들이 도서, 영화, 음악에 대한 평점을 매기거나 관련 평론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도 있고, 타인의 추천 콘텐츠들을 검색할 수도 있다. 그 중 도서 분야를 특화한 ‘더우반독서’는 도서와 관련된 제반 정보들을 상세하게 제공하는 전문 독서사이트이며, 중국 내에서 방문자 수가 가장 많은 커뮤니티⁴⁾로 손꼽히고 있다. 이처럼 중국 현지에서 실질적인 영향력과 신뢰도를 지닌 온라인 독서사이트라는 점, 판매 기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의 순수한 견해와 입장이 대거 반영되어 있을 거라는 점을 감안하여 분석대상을 이 사이트의 독자서평만으로 한정했다. 그밖에 온라인 서점사이트에서도 독자들의 댓글 서평을 다수 찾아볼 수 있지만 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이 배송이나 책 상태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리뷰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하기로 한다.

3.2. 분석사례 선정

최근 10년, 즉 2007-2016년까지 중국에서 정식 출간된 작품 편수가 3편 이상인 한국 문학 작가를 꼽아보니 은희경, 신경숙, 박완서, 김주영, 김영하, 공지영, 박범신, 천명관, 김애란, 한강 이렇게 10명이었다. 그 중에서 공지영(7권), 신경숙(6권), 김영하(5권)의 작품들이 비교적 많이 소개되었다. 상술한 작가들의 문학작품에 대한 더우반독서의 독자서평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각 작가의 작품 별 온라인 독자서평 수⁵⁾(더우반독서 기준)

번호	작가명	작품명	중국어 번역본(출간연도) 2007-2016	더우반 독서 북리뷰 수
1		새의 선물	(鸟的礼物, 2007)	18

- 4) 바이두백과(百度百科)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매달 사이트 방문자수가 80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http://baike.baidu.com/item/%E8%B1%86%E7%93%A3%E7%BD%91/5549800?fromtitle=%E8%B1%86%E7%93%A3&fromid=7803606&type=syn>)
- 5) 독자서평 중 동일 내용의 중복 게재, 무의미한 기호 나열, 책의 일부 문장 발췌 복사 등 분석 자료로서 가치가 없는 서평은 수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은희경 (3권)	소년을 위로해줘	(安慰少年, 2014)	2
3		행복한 사람은 종을 보지 않는다	(幸福的人不看钟, 2016)	2
4	신경숙 (6권)	엄마를 부탁해	(寻找母亲, 2010)	50
5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 벨이 울리고	(哪里传来找我的电话铃声, 2011)	16
6		리진	(李真, 2012)	0
7		깊은 슬픔	(深深的忧伤, 2012)	1
8		바이올렛	(紫罗兰, 2012)	3
9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想要说给月亮听的故事, 2015)	2
10	박완서 (4권)	나목	(裸木, 2007)	11
11		그 남자네 집	(那个男孩的家, 2007)	9
12		휘청거리는 오후	(蹒跚的午后, 2009)	0
13		아주 오래된 농담	(非常久远的玩笑, 2009)	11
14	김주영 (3권)	천둥소리	(惊天雷声, 2008)	3
15		홍어	(洪鱼, 2008)	10
16		멸치	(鲱鱼, 2010)	0
17	김영하 (5권)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我有破坏自己的权利, 2009)	16
18		퀴즈쇼	(猜谜秀, 2009)	4
19		빛의 제국	(光之帝国, 2012)	9
20		검은꽃	(黑色花, 2014)	2
21		오빠가 돌아왔다	(哥哥回来了, 2014)	17
22	박범신 (3권)	비즈니스	(流苏树, 2010)	7
23		아프니까 사랑이다	(因为痛, 所以是爱情, 2012)	13
24		출라체	(一如草芥的尘世, 2013)	6
25	천명관 (3권)	고래	(鲸, 2011)	32
26		고령화가족	(高龄化家族, 2014)	6
27		나의 삼촌 부루스 리	(我的叔叔“李小龙”, 2014)	8
28	김애란 (3권)	달려라 애비	(老爸, 快跑, 2012)	7
29		침이 고인다	(噙满口水, 2014)	6
30		두근두근 내 인생	(我的忐忑人生, 2014)	26
31	한강 (3권)	검은 사슴	(玄鹿, 2013)	1
32		채식주의자	(素食主义者, 2013)	45
33		내 여자의 열매	(植物妻子, 2014)	5
34	공지영	봉순이 언니	(凤顺姐姐, 2010)	17
3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我们的幸福时光, 2010)	161
36		고등어	(鲭鱼, 2010)	8
37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像犀牛角一样只身前行, 2010)	9

38		즐거운 나의 집	(快乐我家, 2010)	2
39	(7권)	사랑 후에 오는 것들	(爱过之后来临的, 2011)	6
40		도가니	(熔炉, 2013)	139

<표 1>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중국시장에 3편 이상 번역 출간되었던 한국 작가 10인의 작품 40편 중에서 독자반응 측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두 작품이 있다. 바로 중국어 번역 출간 수가 가장 많았던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역서명:『我們的幸福時光』, 역자: 원서우샤오(荀壽瀟), 2010년 출간)과 『도가니』(역서명:『熔爐』, 역자: 리무춘(李牧春), 2013년 출간)이다. ‘더우반독서’ 사이트에서 상기 한국문학 40편의 독자반응을 살펴본 결과,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여느 작품들보다 현저하게 많은 독자서평(각 161개, 139개)이 올라와 있었다. 이에 본고는 중국에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낸 이들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평가가 향후 한국문학의 중국 내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바, 이 2편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공지영 작가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2005년 푸른숲 출간/ 2010년 오픈하우스 개정출간)은 ‘세 명의 여자를 살해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남자와 세 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던 한 여자의 이야기로, 다른 듯 닮아 있는 두 남녀의 만남을 통해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깊이 있게 묘사한 소설’⁶⁾이다. 출판사(푸른숲) 서평에 의하면 “저자가 ‘인륜을 무너뜨린 자의 인권도 존중 받아야 마땅한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작품을 통해 인권과 사형제도에 대한 물음표를 대중 앞에 던지고 있다”고 했다. 이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은 『我們的幸福時光』이라는 제목으로 난하이출판공사(南海出版公司)에서 2010년 출간되었다.

또 다른 작품 『도가니』(2009년 창비 출간)는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교장과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했지만 숨방망이 처벌로 판결이 완료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⁷⁾로 현실의 어두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

6) 푸른숲 출판사 책 소개에서 발췌 재구성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33566)

7) 창비 출판사 책 소개에서 인용(http://www.changbi.com/books/8765?board_id=7025)

여주며 장애인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관련해서 출판사(창비) 책 소개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의 모 장애인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 실화를 다룬 이 소설은, 귀머는 세상이 차갑게 외면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거짓과 폭력의 도가니 속에서 한줄기 빛처럼 쏘아 올린 용기와 희망에 대한 감동적 기록이다[...]약자 중에서도 약자인 장애아들의 편에 서서 거짓과 맞서 싸우는 보통 사람들의 분투와 고민이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는 작품.”
(도서출판 창비, 출판사 서평에서 발췌)

이 작품은 중국에서 『熔爐』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2013년 장쑤문예출판사(江蘇文藝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동일 작가가 집필했다는 것 외에 이 두 작품이 지니는 공통점은 소설원작을 바탕으로 한 동명영화로도 제작되어 호응을 얻었다는 것이다(2006년과 2011년에 각각 제작). 시기적으로 보면 이 두 작품의 중국어 번역본은 한국에서 원작이 출간되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을 거둔 이후의 시점에 출간되었다.

〈표 2〉 두 작품의 한국어, 중국어 표지

	한국어 원작	동명영화	중국어 번역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05년 출간)	 (2006년 상영)	 (2010년 출간)
『도가니』	 (2009년 출간)	 (2011년 상영)	 (2013년 출간)

요컨대 이들 작품이 중국 내에서 어느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었던 것은 1)인간의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보편적 주제 2)소설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입된 사회적 이슈 3)영화로의 2차 제작에 따른 홍보효과가 중국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 통했기 때문이다.

4.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중국어 번역서에 대한 온라인 독자서평 분석

상기 두 작품에 대해 중국 독자들이 ‘더우반독서’ 온라인서평란에 올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서평의 주요 내용 및 기술 관점에 따라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 변화 표명’, ‘작가와 작품 주제에 대한 공감 표시’, ‘영화와의 비교’,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 평가’ 등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각각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 변화 표명

중국의 한류 열풍 속에서도 그 동안 한국문학은 흥미 위주의 대중적 장르 문학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다. 김하인의『국화꽃향기』나 귀여니의『그놈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등 한동안 중국 내에서 인기를 끌었던 소설들은 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한국문학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한국문학을 접해보지 못했던 중국 독자들은 한국문학 하면 으레 가볍고 통속적인 소설을 연상하거나 정형적인 틀을 가진 한류 드라마의 연장선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다음의 온라인 독자서평을 살펴보면, 중국 독자들 사이에 한류 하면 떠올랐던 공식과도 같은 이미지들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 작품을 통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표명한 서평 사례>8)

8) 밑줄은 해당 유형에 속하는 근거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 예전에는 한국소설 하면 떠오른 것이 중학교 때 읽었던 <그 높은 멋있었다>, <늑대의 유혹> 류의 소설이 전부였다. [...]지인이 이 책을 추천해 읽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무겁고 깊이 있는 화제를 다루고 있었다. [2012-02-25, Ninaniya]
- 편견은 평가의 기초가 되곤 한다. 한류 드라마의 영향력 때문인지 한국 문학도 그럴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처음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기껏해야 <刻下來的幸福時光(새겨진 행복한 시간, 중국 대중소설 작가 귀징밍의 작품)> 부류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읽는 순간 뭔가 다른 낯선 느낌에 휩싸였다. [2010-04-05, Tiropurple]
- 한국 드라마, 영화 하면 미남미녀, 산뜻함, 복잡한 애정구도, 감동적인 생사이별, 원수 집안 간의 갈등 등 젊은 세대들이나 선호할 법한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도가니>는 한국드라마에 대한 편견을 바꾸고 한국에 대해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2013-08-10, 艾小艾]
- 한국문학에 처음 발을 들인 건 개인적인 취향 때문이라기보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한 친구의 추천 때문이었다. 이 작품은 심도 있는 사고를 요하는 책이다[...] 한국문학을 접해 본 지금, 막연하지만 드는 생각은 한국인들이 확실히 감정적이라는 것이다. 공지영의 문체는 명확하고 정련되고 간결해서 <베이징인형>을 쓴 춘수(春樹)와 비슷한 느낌이 든다[...] 이 작품은 예전에 봤던 많은 작품들과 확실히 다르다. [2011-01-18, 連記的湖北的)]
- 문득 한국문학작품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더우반에서 한국문학 소모임을 검색했더니 이 책이 추천되어 있었다. 읽고 난 후 처음 든 생각은 한국에도 이렇게 심리묘사가 섬세한 소설이 있었다니 놀랍다는 것이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참신하게 다가왔다. 시간날 때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각 장의 서두에 인용되는 시 구절들도 훌륭하다. [2012-04-22, 44 sunsets]
- 흥미로운 스토리에 이끌려 단숨에 읽었다. 한국소설이 이렇게 깊이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2015-02-03, sweetteeth]

이처럼 중국 독자들은 대중소설과 또 다른 선상의 두 한국소설에 대해 대체적으로 ‘예상 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서 접하던 여느 한국 소설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상당 수였으며, 한국문학과 일면식도 없었지만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등 여러 가지 루트로 공지영의

표시한 것임.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문학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된 사례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에도 이렇게 심리묘사가 섬세한 소설이 있었다니 놀랍다’거나 ‘한국 소설이 이렇게 깊이가 있는 줄 몰랐다’는 등의 반응에서는 그간 속속들이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문학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기대감도 엿볼 수 있다. 두 작품이 한국문학에 대한 기존 편견을 깨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4.2 작가와 작품 주제에 대한 공감 표시

공지영 작가의 소설을 펴내는 한국 출판사들은 작가를 소개할 때 “예리한 통찰력과 속도감 있는 문장으로 현실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작가, 불합리와 모순에 맞서는 당당한 정직성, 동시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뛰어난 감수성으로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작품들을 발표해온 작가”⁹⁾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작가의 통찰력과 정직함, 감수성은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도 적잖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같은 반응은 중국 독자들이 작성한 온라인 서평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결국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중국 독자들에게 필력을 인정받으며 서서히 각인되고 있다는 증거다.

<작가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서평 사례>

- 영화 <도가니>의 원작으로 명성이 자자한 이 작품을 드디어 읽었다. 내용은 영화보다 더 어둡고 무기력하다. 사실 문학 기교는 차치하고 이 작품의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중국 문화계가 진땀을 흘릴만하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어쨌거나 표출했고, 행동으로 해냈다. 무한한 존경을 표할 따름이다. [2013-08-24, 任丘]
- 한국문학의 자존심, 여성 작가가 이처럼 진중하고 깊은 작품을 써 냈다는 것이 놀랍다. 강추! [2015-10-07, 伯牙]
- 공지영은 한국문학의 자존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학의 양심이다. [2014-06-28, 易笑聲]

9) 『도가니』(창비 2009),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푸른숲 2005/ 오픈하우스 2010) 작가 소개 참고

- 이 책이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라면 바로 이러한 시선, 즉 사회현실을 꿰뚫히게 그리는 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도 이처럼 어두운 삶의 이면을 봐야만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10-09, Grace]
- 공지영은 정말 대단하다. 특히 강인호라는 인물의 묘사 부분에서는 더욱 그렇다. [2014-01-19, 千]
- 한국은 한류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것처럼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든 무력하고 어두운 이면, 추악한 인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광주 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사건을 소재로 한 <도가니>의 작가 공지영은 성실하고 직설적인 어조로 진상을 그리고 내면을 파헤치며, 예리한 시선으로 사회의 부조리 현상을 묘사해낸다. 그리고 정의의 정신과 역량을 되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소박한 문자로 역설한다. [2013-08-10, 艾小艾]

무엇보다 작가로서 현시대의 어두운 치부를 과감하고 진솔하게 보여줬다는 점, 진중하고 무거운 주제를 섬세하게 다루어 냈다는 점에서 공지영은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 ‘한국문학의 자존심’, ‘한국문학의 양심’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특히 어둡고 무기력한 현실의 이면을 감추지 않고 표출해 낸 것에 찬사를 보내며 ‘중국 문화계가 진땀을 흘릴만 하다’고 평하거나 ‘작가라면 이처럼 사회현실을 꿰뚫히게 그려내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평한 내용에서는 작가에 대한 긍정적 시선과 존경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오락성과 상업성에 기반한 국내 대중소설이 그동안 중국에서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이것이 모든 중국 독자들의 독서취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작품성과 실험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작가들을 기다리는 독자들도 상당 수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다음의 서평 사례들을 보면, 주제 측면에서 작품이 그려내고자 했던 현실 속 문제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고민들이 중국 독자들에게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주제 및 내용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서평 사례> 1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결코 가볍지 않은 요소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았지만 작가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언젠가 올 죽음 앞에서 허둥대지 말고, 증오로

- 자신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한다. 인생은 원래 그 자체가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이다. [2012-03-22, Q小和]
- 이 한국작가의 소설은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에게 감흥을 줄 뿐 아니라 현세 모든 정상인의 내면도 뚫어보고 있다. [2013-11-23, 葡萄藤]
 - 자살, 강간, 사형, 위선, 악함... 어두운 주제들이 뒤섞여 있지만 읽는 내내 따뜻함이 느껴졌다. [2014-02-01, 暗月]
 - 이 작품이 전하는 깊은 주제와 함의에 심분 공감한다. 한국작가들이 그려내는 삶 그 자체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2013-10-08, 木子优]
 -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식어버리는 패스트푸드식 사랑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가벼운 명제로 무거운 생명감과 행복감을 그려낸 두고두고 읽어도 좋은 명작이다. [2010.08.19, 不語庭]
 - 이 책을 읽고 한동안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변화한 도시 뒤편 어딘가에 이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것이, 문명사회에 아직도 이렇게 잔혹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행복을 가져왔을까? 세상의 냉대? 아니면 탐욕? 아니면 두 가지 다?[...] 삶의 권리와 개과천선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형수들이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2010-05-25, 陽光的小老虎]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대해서 중국 독자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들을 섬세하고 감성적으로 처리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작품을 읽고 난 후 ‘따뜻함’, ‘답답함’, ‘슬픔’, ‘사형수들을 향한 연민’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작가가 ‘죽음 앞에서 허둥대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거나 ‘영혼이 메마른 사람은 물론 일반인들의 내면까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내용들을 근거로 보면, 행복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사형제도, 인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성찰을 추구하고자 했던 작품 본래의 취지를 중국 독자들이 적절히 포착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주제 및 내용에 대한 공감을 나타낸 서평 사례> 2

-『도가니』

- 작가 공지영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질책하는 동시에 사건에 연루된 다른 주변 사람들과 일반 대중들의 반응에도 주목했다. 어째서 그들은 그토록 태연하게 ‘평범한 악’에 참여하고 극악무도함에 대해 본체 만체 할 수 있을까? [2014-03-17, 李小舫]

- 이런 형식의 책은 처음 접해본다.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읽고 난 후 전율이 느껴졌다.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선한 사람도 완벽하게 악한 사람도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 중간지대에서 양심과 악한 마음을 모두 가지고 살고 있다. 다만 사람들마다 어떤 것을 자기 행위의 사상으로 선택하느냐가 다를 뿐이다. [2011-03-07, Vanessa]
- 천사 같은 아이들이 짓밟히는 장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설은 공분을 샀던 실제 사건을 균중의 시선으로 다룬 작품이다. 양심 있는 독자라면 주목해볼 만한 작품! [2013-08-13, 黃飛紅]
- 이 책이 내게 주는 감흥은 아주 크다. 인성의 악함을 보게 하고, 인성 안에 여전히 악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무기력함과 쓸쓸함 또한 느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다. [2014-10-18, 老淚]
- 소설을 읽고 나니 만감이 교차한다. 일전에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2014-04-16, 堅守...]
- 정말 한국 작품이 맞나 싶다. 어떻게 이렇게 중국의 현실과도 잘 들어맞는지? 스토리는 전체적으로 슬프고 애통하고 무기력하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했던 남자 주인공도 이해가 간다. [2014-06-28, 易笑聲]
-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반 서민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다. 이 책의 작가는 학교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사건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부당한 일들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난다. 힘없는 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자신의 원칙을 낮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언제든지 희망을 보고 자신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2013-11-15, juliali1129]

소설 『도가니』를 읽은 중국 독자들은 ‘전율을 느꼈다’, ‘커다란 충격이다’, ‘몸서리칠 정도다’, ‘무기력해진다’, ‘쓸쓸하다’, ‘쓰라리다’, ‘눈물을 흘렸다’ 등 각자의 방식으로 독후 소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원작을 접했던 한국 독자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부 독자들은 작가가 범죄자의 극악무도함을 그려냈을 뿐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평범한 악’에 가담하거나 현실의 장벽과 타협해야 하는 주변인과 일반 균중들의 심리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선과 악 사이에서, 정의와 양심 앞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자

아성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도가니』 서평의 경우, 작품 내용이 중국의 현실과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 중국 내 유사 사건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는 의견부터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약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는 상황들이 일상에서 빈번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독자들도 있었다.

4.3 영화와의 비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는 중국에 번역 출간되기 전, 한국에서 원작을 영화화해 흥행을 거두었던 작품들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정식 극장 개봉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DVD나 동영상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영화를 손쉽게 볼 수 있다.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짐에 따라 독자들이 영화로 작품을 먼저 접한 후 원작 소설을 찾아본 경우가 상당 수 관찰되었다. 아래 제시된 서평들은 동명 영화와 연계하여 감상을 기술한 사례들이다.

<소설과 영화를 비교한 서평 사례>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를 세 번이나 봤지만 소설로 접하니 감회가 새롭고 생각이 더 많아진다. [2012-11-18, 凉凉]
- 책은 영화에서 표현되지 못했던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 영화에서 인물 심리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느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마지막 서유진의 편지는 눈물샘을 자극했다. [2013-08-27, 九回]
- 소설이 영화보다 인물심리와 동작 묘사 면에서 훨씬 더 세밀하다. [2014-07-23, 夏半夜]
- 영화를 먼저 보고 소설을 접했다. 영화가 충격적인 장면들을 스크린에 담아 관객 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소설은 절제적이고 함축적이다. 특히 지극히 현실적이고 무기력한 결말은 기대했던 격앙된 승리가 없어 허무했다. 자욱한 안개로 주변 색을 지워버린 마지막 장면은 힘있게 느껴진다. [2016-02-23, 旅游仔]
- 이틀간 미친 듯이 이 책을 읽었다. 영화 <도가니>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몇 번이나 눈시울이 붉어졌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도가니>가 한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영화로도 제작되어 입소문을 타게 된 것은 절대적으로 공지영의 원작이라는 점 때문이다. [2012-03-14, 小藝Evelyn]

- 강동원 주연 영화의 원작이다. 영화 때문에 소설도 찾아보게 되었는데 역시나 평이 좋았다. 소설에는 영화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디테일이 곳곳에 살아있다. [2011-03-21, 凌熙上]

대부분 영화에서 느꼈던 감동과 충격을 잊지 못하고 다시 원작 소설을 찾아 읽은 사례들로 유추되며, 영화에 이어 소설로도 접하니 감회가 새롭다거나 영화로 봤을 때의 조마조마함과 슬픔, 답답함이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소감들이 있었다. 그밖에 ‘영화에서 표현되지 못한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거나 ‘영화보다 인물심리와 동작 묘사가 더 세밀하다’거나 ‘영화의 적나라함에 비해 절제적이고 함축적이다’와 같이, 동명영화와 비교하여 느끼는 소회들을 밝히는 독자들도 있었다. 이는 영상으로 접한 작품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원작 소설로 확장된 결과이며, 분석 작품들이 많은 독자서평을 확보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해석해 볼 수 있다.

4.4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 평가

영어 원작에 비해 한국어 문학작품은 중국 일반독자들의 원문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본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서평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도착어 텍스트를 기준으로 한 번역 품질 및 가독성에 관한 언급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번역과 직결된 언급 자체가 연구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수적으로 많지 않았다. 한국 번역문학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구체적으로 원문과 번역문을 비교하며 번역에 대한 비평을 한 독자도 간혹 발견되었지만 본고에서 분석한 작품 두 편의 경우 상세한 비교를 통한 번역 평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나마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을 번역의 관점에서 평가한 내용들은 몇 가지 있었는데, 바로 아래와 같다.

<도착어 텍스트의 번역 품질 평가 사례>

- 주제는 좋으나 소설 자체로만 보면 가독성이 그저 그렇다. [2015-11-17, fubi]
- 번역이 감정 몰입을 해치지만 스토리는 좋다.[2015-09-26, 路過蜻蜓]
- 번역이 형편없다. 한국어 고유명사들에 대한 주가 없어서 읽는데 힘들었다. [2014-08-21, Celestebianco]

- 영화보다는 책이 낫다. 번역 수준은 보통이다. 잘 읽히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2015-02-08, 無情]
- 역자의 번역이 뛰어나다. 원작도 번역도 영화도 좋다. 강추! [2011-09-29, 肥欣]

이처럼 번역 관점에서의 평은 대부분 번역 결과물 자체에 대한 짧은 소감에 그치고 있으며, 원문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고차원적인 번역비평 수준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주목할 점은 번역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도 있지만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사실은 향후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품질을 위해 보다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한국문학 번역에 대한 독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김운진(2013)이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 내 번역가의 인력수급 상황이 불균형하고 한국문학 전문번역에 특화된 번역가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시스템적 배경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영화의 후광효과와 작가 인지도, 탄탄한 스토리를 갖춘 수작들이 번역문제로 인해 사장되거나 평가 절하되지 않으려면 우수한 번역가 확보와 번역 완성도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온라인 독자서평을 통해 도출한 한국문학 확대 방안 제언

그렇다면 앞서 중국 독자들의 온라인 서평에서 도출한 내용들이 중국 출판 시장 내 한국문학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데 어떠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다. 크게 작품의 선정/번역 측면과 홍보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작품의 선정 및 번역 측면에서는 첫째, 중국 독자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고민이나 사회적 이슈를 다룬 작품들을 선정해야 한다. 앞서 분석한 두 작품은 사형제도와 장애인 인권 문제라는 다소 묵직하면서도 민감한 이슈를 이야기 속에 잘 녹여내고 있는데, ‘말초신경적인 흥미 위주의 대중문학이 곧 한국문학의 특징’이라는 편견을 가졌던 상당 수 중국 독자들에게 매우 참신

하고 놀라운 자극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독자와 중국 독자 간에 공통분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 독자들의 번역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한국문학의 번역 문제는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국문학번역원 등 기관에서 제도적 차원의 전문 번역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한국문학 애호가와 전문 번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한국문학의 중국어 번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는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되었듯이 번역 결과물에 대한 불만과 지적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구나 앞으로 한국어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의 비교 비평이 가능한 전문 독자층까지 가세한다면 번역에 대한 요구와 기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 문학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실력 있는 중국인 번역가들을 계속 양성함과 동시에 문학적 소양을 갖춘 한국인 전문 번역가와와의 공역시스템을 갖춘다거나 번역 후 철저한 감수를 거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번역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홍보 측면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문학을 둘러싼 중국 독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스마트기기 보편화로 출판 홍보 수단도 다각화됨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활용되는 블로그형 도서 정보 플랫폼, 온라인/모바일 도서 큐레이션 서비스, 도서 관련 팟캐스트 서비스 등의 방식을 중국 시장에도 응용해 나감으로써 중국 독자들과의 접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국 내 매스컴이나 학계에서 한국문학이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우반과 같은 온라인 도서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관심 독자와 애호가 층이 등장해 서평을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등 비교적 활발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고 있다.

2015년 중국 도서출판 만족도 조사 보고서¹⁰⁾에 따르면 중국 독자들이 도서 정보를 얻는 채널로 ‘웨이신(微信, We Chat) 공중계정’이 1위를 차지했다. ‘웨이신 공중계정’과 ‘웨이보(微博, 중국판트위터)’를 통해 도서 정보를 얻는다는

10) 2016.1.20 光明日報 기사 <圖書出版要堅守“內容至上”原則>에서 발췌

응답자 비중은 전체 48.6%에 달했으며, ‘출판사 홈페이지’와 ‘당당왕 등 온라인 도서관사이트’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도 38.3%에 이르렀다.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독자들이 일반 매스컴이나 오프라인 서점보다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도서를 발견하고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특히 중국 독자들이 도서정보 취득 채널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웨이신은 2011년 텐센트사에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로서 한국의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 기능을 동시에 탑재하고 있는데, ‘공중계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분야별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 및 공유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이나 출판사 차원에서 한국문학과 국내유명 작가들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여 중국의 구독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중국 내에 이미 번역/출간된 한국문학의 유통 및 홍보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

둘째, 영화나 공연 등 이종매체와의 융합과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의 온라인 독자평 양상을 보면,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제작되어 인기를 끈 적이 있거나¹¹⁾, 유명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들고 나온 적이 있는¹²⁾ 한국문학들이 주로 중국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었다. 한국문학의 발견성을 높이려면 책의 내용을 재료 삼아 다양한 미디어의 형태로 재가공하는 노력과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야흐로 ‘미디어 컨버전스’, ‘크로스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미디어 간 접합과 융합은 필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출판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탄탄한 스토리텔링이 담보된 작품을 영화나 뮤지컬, 만화, 드라마 등 다른 미디어 형식으로도 제작하여 중국 시장에 동시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한국문학의 영역을 확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단계로만 그치지 않고 책에 대한 소개를 영상에 담아 전하는 북트레일러(Book-Trailer)를 제작해 배포하거나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를 팟캐스트 형태로 연재하거나 북콘서트를 열어 오프라인에서 독자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등의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11) 한국소설들 중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한강의 『채식주의자』, 천명관의 『고령화 가족』, 박범신의 『아프니까 사랑이다』 등은 동명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12)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여주인공이 들고 읽었던 작품이다.

셋째, SNS를 통해 한국문학의 매력을 적극 알릴 수 있는 고정 독자층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한국문학이 중국 독자들 사이에 더 깊이, 폭넓게 파고들려면 SNS를 활용한 온라인 구전효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 전문번역가나 예비 번역가, 한국어를 전공했거나 유학 경험이 있는 중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국 내 한국인, 한국문학 애독자 등을 중심으로 서평단이나 커뮤니티를 조직해 한국문학에 대한 적극적인 ‘스니저(sneezers: 구전 확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 공지영 작가의 두 작품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온라인서평을 내용 면에서 분석하고 실제 중국 독자들의 의견이 중국 출판 시장 내 한국문학 확대 전략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국 독자들은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룬 한국문학 작품에 참신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현실의 모순과 불합리를 섬세하게 풀어낸 공지영 작가의 필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인 두 작품에 대한 중국 독자들의 관심이 동명영 화로부터 출발했다는 단서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번역 측면의 평가는 도착어 텍스트의 가독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 평이 엇갈리긴 했으나 상당 수가 번역 만족도가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온라인 독자서평의 전반적 현상과 내용적 특성을 감안하건대, 향후 중국 출판 시장에서 한국문학의 입지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중국 독자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주제의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공역이나 다중 감수 등 보다 체계적인 번역시스템으로 번역 품질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또한 홍보 측면에서는 우선 출판시장의 디지털화와 미디어 컨버전스 시대에 부응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독자와의 접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학과 이종매체와의 융합과 연계를 통해 동시적으로 콘텐츠를 소개하거나 오디오 및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식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NS를 활용해 한국문학의 매력을 구전할 수 있는 고정

독자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책을 발견하는 일이 다반사인 요즘의 출판 환경에서 ‘독자’라는 주체에 의한 ‘온라인 서평’이 번역문학의 발전전략에 새로운 실마리를 던져주지 않을까라는 연구자의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하였다. 이제 번역문학에 대한 평가나 홍보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며, 실제 사용자로서 독자가 내리는 평가와 기대가 더욱 현실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을 2편에 한정했기 때문에 독자서평의 내용을 다소 거칠게 유형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현시 독자들의 견해와 시각을 모아 한국 번역문학의 확대 방안을 제안해보았음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공정자 (2014) 『국내 정기간행물에 나타난 그림책 서평의 내용분석』,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호 (2003) 『문헌비평론』, 서울: 태일사.
- 김선남 (2015) 「한국 번역출판의 발전방안 연구」, 『서지학연구』 61: 263-294.
- (2016) 「한국 출판물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지학연구』 65: 331-355.
- 김순미 (2012) 「온라인상 독자들의 번역비평」, 『번역학연구』 13(2): 7-40.
- 김윤진 (2013) 「중국에서의 문학한류와 번역현황」, 『한국출판학연구』 19(1): 71-85.
- 김인숙 (2009) 『인터넷 독자서평의 활용 실태 분석』,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나 (2008) 『인터넷 서평매체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석순 (2011) 「출판콘텐츠의 다중미디어 확산 전략연구- 스토리텔링 3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출판학연구』 37(2): 115-139.
- 민경록 (2015) 『어린이그림책의 서평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원 (2004) 『한국 출판 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왕염려 (2014) 『중국의 한국현대문학 번역 및 수용양태연구』,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장도준 (2010) 「독자반응이론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19: 207-245.

장애리 (2013) 「한중번역 출판사의 통시적 고찰」, 『통역과 번역』 15(1): 203-233.

전현주 (2008) 「번역비평 텍스트의 패러다임」, 『번역학연구』 9(1): 215-257.

최면정 (2014) 「한국 소설의 글로벌 전략- 해외 독자에의 수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국제한인문학연구』 14: 233-268.

최은정 (2015) 「중국현대소설의 국내 번역 현황 및 독자 수용 양상 - 최근 10년 간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48: 103-125.

한국문학평론가협회 (2006) 『문학비평용어사전』, 서울: 국학자료원.

<참고 인터넷 자료>

秦艷華 외 (2016. 1. 20) 「圖書出版要堅守“內容至上”原則」, 『光明日報』, 2016년 10월 24일 검색

http://epaper.gmw.cn/gmrb/html/2016-01/20/nw.D110000gmrb_20160120_1-10.htm?div=-1

<분석 도서>

공지영 (2005)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과주: 푸른숲

공지영 (2009) 『도가니』, 과주: 창비

孔枝泳 (2010) 『我們的幸福時光』, 南海出版公司, 荀壽瀟(譯)

孔枝泳 (2013) 『熔爐』, 江蘇文藝出版社, 李牧春(譯)

[Abstract]

**Chinese Readers' Response to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Online Reviews of Gong Ji-Young's
Our Happy Time and *The Crucible***

Kang, Kyoung-Yi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online book reviews posted by Chinese readers who have been exposed to translations of Korean literature. Based on the various opinions expressed by the Chinese readers,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e reviews to establish strategies for expanding Korean literature into the Chinese market.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Chinese readers' online reviews of Korean author Gong Ji-young's two translated novels, *Our Happy Time* and *The Crucible*.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had been a gradual change in Chinese readers' awareness of Korean literature. It was also found that if a work possessed both literary value and a universal theme, the work could sufficiently appeal to Chinese readers, and if a novel was made into a film like *Our Happy Time* into *Maundy Thursday*, the work had a much more positive reception among readers.

In consideration of translation, the readers evaluated the translated works while focusing on the readability and quality of the target texts. As there were many negative comments, it is determined that the quality of translation needs further improvement. Also, in order to disseminate Korean literature in China on a larger scale, Korean publishers should maximize the effects of public relations by making the most of online and mobile spaces and make a continued attempt to connect and converge literature with different forms of media.

▶ Key Words: 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on-line book reviews, local reader's response, China's publication market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번역학과 BK21 플러스 연구교수

jjongli1011@ewha.ac.kr

관심분야: 출판번역, 아동문학번역, 번역교육, 이데올로기, 담화분석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7일